

세계 각국에서 전해 온

2007년 정해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신년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각국의 사회복지계 대표들은 신년 인사를 통해 2007년을 한국과의 교류를 돌아보고 새해 새로운 교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Rajendran Muthu President
Asian-Pacific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Education(APASWE)

아시아태평양사회복지교육협회에서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아시아태평양사회복지교육협회의 임원을 대신해서 한국사회복지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발전과 발달을 이룩한 한국의 교육자들과 사회복지현장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복지협회들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여를 하고 역동성을 보여줌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회복지계에서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제 3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제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7년에는 (우리 임원 멤버인 한인영교수를 포함하여) 한국의 동료들과 더욱더 공고한 관계를 맺길 기대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계의 풍성한 한해를 기원합니다.



Antonina Dashkina President
Russian Union of Social Workers and Social
Pedagogues.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커다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러시아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간에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와 우정을 키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층 더 돈독한 관계를 맺는 2007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Tee Liang Ngiam Professor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한국의 사회복지사 동료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다른 아시아국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뻗은 한국사회복지사

새해 인사

협회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또 애플 프로젝트에서 진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2007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한해가 되시길 싱가폴에서 성원과 따뜻한 소망을 담아 보냅니다.



Yasuhiro Kuroki President
Japanese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

최근까지 일본에서는 1987년 시작된 사회복지사와 케어복지사의 국가자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욕구를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현장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습과 교육 시스템 특히 현장실습의 슈퍼비전과정이 재검토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교육과정과 교과과정 내용, 실용강좌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것입니다. 깊은 협력관계를 위해서 교육기관과 전문기관이 함께 연계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Vera Usenova President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of the Kyrgyz Republic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양질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며 생존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캐나다, 싱가포르와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삶에 대한 스트레스는 증가되고 있고, 30년 전 몇 년 몇 개월씩 지속되던 것들은 이제 몇 주 며칠로 압축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에서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일본과 브라질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같습니다. 현명한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 성직자나 심리학자, 재활학자 그리고 교육자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연계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들과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다가오는 2007년에는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찾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Dr. Romeo C. Quieta Dean & Professor
College of Social Work and Community Developmen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파키스탄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와 사람들을 돋는 등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협회에 의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정은 필적할만한 가치입니다. 협회 멤버들이 보여준 화합과 응집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복지사들을 가난하고 억압되어있으며 사회적으로 뒤쳐있고,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을 섭기도록 이끈 협회와 협회 멤버들의 리더십의 비전입니다.

Sibin Wang
Head, China Association for Social Work Education

중국사회복지교육협회와 중국 사회복지교육 분야의 동료들을 대신하여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진심 어린 소망을 보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리더십으로 한국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유용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큰 성과를 가

져왔습니다. 한국의 동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미래 사람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성장과 성공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양국간 사회복지분야에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장이 조성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A.Ranaweera Director
Sri Lanka School of Social Work

스리랑카의 사회복지대학교와 사회복지사를 대신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행하는 ‘Social Worker’에 신년 메세지를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돋기 위해 전념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인간 존엄성, 가치, 평등 그리고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 헌신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였던 2005년 아시아태평양사회복지대회와 2006년 애플워크샵에 참가하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있고 뛰어난 협회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내에만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학자와 현장가를 함께 불러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주도성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은 스리랑카 사회에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한 사회복지 방법들과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2007년 새해 맞으시길 바라며, 2007년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 가족 안의 구성원과 같이 더욱 더 관계가 돈독해지길 기원합니다.



Miyako Kake,

General President Takahashi Education Institute

2006년 10월 서울애플워크샵 참석 기간 동안에 저에게 베 풀어주신 친절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 사협회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국사회복지교육협회와 중국 사회복지교육 분야의 동료들을 대신하여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가장 진심어린 소망을 보냅니다.

경제 세계화의 빠른 확산은 사회 과정에는 기회를, 사회 평등과 조화에는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리더십으로 한국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 사들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유용한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동료들이 이루어낸 성공 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미래 사람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성장과 성공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양국간 사회복지분야에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장이 조성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Apinya Wechayachai Dean,

Faculty of Social Administration Thammasat University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서울애플워크샵과 아시아태 평양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한 것은 태국의 저와 저의 동료에게 아주 큰 기회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참석자를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섬긴 주최측과 자원봉사자들의 활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우정과 특히 김성이 회장님으로부터 서울 애플워크샵과 같은 창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독특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의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의식을 강화하고, 미래에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정신적 마인드를 연결시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을 하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 모두 한국의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위해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취약한 그룹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많은 요소를 뛰어 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함께 할 동료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SW